

# CAF

Center for Ambitious Failure

## KAISTian Story - 공모전 수상작

### My Faceless Grief

000 |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우리 사회는 종종 슬픔을 쇠약하고 가려한 상태로 바라보지만,  
슬픔은 내게 약해져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과 이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었다.  
이제 나는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내 가족의 과거가  
다른 평범한 이들의 그것과 같아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회로부터 받아들여 지기를 바라는 대신, 그리고 망가진 인간으로 보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대신,  
나는 내 안의 슬픔이 나로 하여금 인간의 고통이 가진 다양한 측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해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내가 가진 슬픔을 다른 친구들의 과거와 비교하고 나의 내면이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변명으로 삼는 대신, 나는 고통은 어떤 잣대로도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고통은 나에게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도 타인의 고통에 열린 자세로 대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2014년 2월 24일 아침.

그날은 당시 14세였던 내가 8학년 기말 고사를 치른 평범한 날 중 하나여야 했다. 그날 아침 나는 학교에 제출해야 할 삼각함수 과제를 보완하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났어야 했다. 그리고 나서 재빨리 샤워를 하고, 책가방에 기하학 상자를 챙겼는지 확인하고, 시리얼로 아침을 먹고, 그날 생물 기말 고사가 예정되어 있던 7학년 여동생과 함께 등교했어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운명의 날은 영원히 나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갈림길이자 메울 수 없는 틈이 되어 버렸다. 그 날, 나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에 잠에서 화들짝 깨 내 몸의 투쟁-도피 반응이 시작되자마자 침대에서 뛰쳐나온 것을 기억한다.

동생의 방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 올라미에 걸린 동생의 축 늘어진 몸을 꼭 끌어안고 있던 모습은 결코 잊을 수 없다.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누군가 주방으로 달려가 올라미를 자를 칼을 가져왔고, 누군가 동생을 올라미에서 풀어주었다. 아버지는 동생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고, 어머니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동생의 몸이 아직 따뜻하니 죽지 않았을 거라고 나를 안심시키기 바쁘셨다. 나는 즉시 내 방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내 미래에 예비된 모든 행운을 포기할 테니 제발 동생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병원에서 동생의 생사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던 20분 동안 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리고 순수한 소녀를 잘못되도록 내버려 둘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의사들이 병원으로 이송된 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아버지가 동생을 발견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었던 것이다. 당시 14세이던 나는 동생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동생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8년이 흐른 지금, 나는 그녀의 죽음이 내 인생에 얼마나 뒤틀어 놓았는지, 그리고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의 내 현실을 만들었는지를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다.

동생의 죽음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 곁을 떠나는 것뿐이었다. 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세 식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슬픔의 섬에 고립되어 있는 대신, 나는 다른 주에 있는 기숙 학교로 옮겨 중학교를 졸업했고,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얼룩진 우리 가족의 과거를 최대한 잊고 지내려 애썼다. 동생의 죽음 이후 첫 2년 동안 나는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던 동생이 아주 고약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어느 날 “젠! 속았지?”라며 내 눈 앞에 나타나 킁킁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그 후 몇 년이 흐른 뒤 한 심리치료사로부터 그러한 장기적인 망상은 당시 침대에 불과했던 나의 뇌가 선택한 경직 반응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아직 성장 중인 뇌가 극심한 트라우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불행히도 나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분노와 죄책감은 언제까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가끔씩 그것이 흥측한 모습을 드러내는 날엔 조용한 교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흐느끼거나, 위협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엔 반항적인 행동으로 반응했다. 마치 나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해치는 분노 덩어리 같았다. 그런 상태였기에, 중학교를 마치고 싱가포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무척이나 기뻐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면 나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내가 다른 이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내 안의 혼돈을 영원히 잠재워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해줄 남자친구를 찾는 것이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구원자였던 것이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나의 공포는 너무나 강렬했기에, 나는 남녀 불문 그 누구 와도 친구가 될 수 없었다. 주변인과의 관계는 늘 불안정했고, 길게 지속되지 못했으며, 본질적으로 거래에 가까웠다. 돌이켜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골라 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은 외부에 혼돈의 구실을 만들어 내 불행의 근본 원인이라고 탓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발한 방법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온 힘을 다해 없애고자 했지만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감정의 쓰나미를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더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다. 옥스포드 대학의 물리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나는 옥스포드 같은 훌륭한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그 곳으로 가면 지난 과거를 모두 지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나는 옥스포드 세인트캐서린 대학에서 3학기를 마친 후, 과중한 학비 부담으로 학위 프로그램을 중퇴해야만 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KAIST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곳에 가면 더 많은 장학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 더욱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국의 KAIST에 입학했고, 한국에서 성적으로 매우 '개방된' 생활을 이어갔다. 당연히 그런 생활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던 내 정신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다. 십대였던 과거의 나는 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나를 버렸다고 인식했고, 그 이후 내 인생의 목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더 이상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 천국과도 같은 온기가 전해지는 연인의 따뜻한 품 안에 안겨 정서적인 교감을 할 때면, 그것이 잠시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할 뿐이라도, 누군가 내 존재를 인식하고,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나 중독적이고 소모적이기까지 했던 그런 감정과 연인과의 육체적 친밀감은 나의 내면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은 감정적 요구, 정교하게 밀봉해 이끼가 가득하고 어둑어둑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안전하게 숨겨둔 그 요구까지 충족시켜 줄 수는 없었다.

KAIST에 온 이후, 내 신체 조건과 피부색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나는 스스로 보기 흉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낙오자 취급을 받을까 두려워 내가 가진 트라우마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다. 내 인생의 지침에 되어 주던 다양한 아이디어와 원칙, 야망은 단단히 밀봉되어 기억 속 이름 없는 한 권으로 밀려나고, 일말의 도덕 관념도 남아있지 않은 쾌락주의가 새롭게 나의 세계관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고, 내 행동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키는 대로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 이용했다. 나는 너무 어린 나이에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잡고 있었다. 자연히 거의 모든 친구들과 멀어졌고, 점차 나는 며칠 동안이나 마치 감옥 같은 내 방에 유폐되어 지내게 되었다.

내면의 감정적 공백을 타인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인생 목표가 된 나는 빠르게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결국 내 자신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신경과학 분야를 공부하며 느꼈던 만족감,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을 하며 경험한 호기심과 열정, 아르바이트를 하며 얻은 충족감, 내가 그토록 원하던 교우 관계에서의 소속감과 같은 대학 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이 마치 카드로 지은 집이 바람 한 번에 날아가듯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에도 지각이 잦아졌고, 엉망인 내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 부끄러워 자주 일을 그만두었다. KAIST의 치열한 경쟁 분위기 역시 학과 공부에 전념하기 위한 동기가 되어주지 못했다. 나는 자주 수업에 결석하고 과제를 빠트렸으며, 급기야 2학년 때는 두 과목에 낙제하고 말았다. 다른 과목에서도 역시 C와 D를 받는 등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었고, 몇달 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던 신경과학 연구실에 나가는 것도 그만두었다.

KAIST 입학 당시, 나는 궁극적으로 자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더 나은 정신 건강 진단 도구를 발명하기 위해 뇌신경의 토대에 대해 배우고자 했던 열정적인 과학도였다. 그러나 불과 네 학기만에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학업에 집중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었고, 꾸준히 연구실에 나가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다. 힘든 시기 나를 사랑해주고 응원해 줄 남자 친구조차 사귄 수 없었다. 점차 나는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외로움에 사로잡혔다. 여동생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그만두자 우울증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 우울증은 내 삶과 함께 해왔다. 매일 같이 반 고흐의 마지막으로 남겼었던 "슬픔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에 깊이 공감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서서히 도움이 손길이 나타났다. 나의 절친이 가족을 자살로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자조 모임인 Grief Anonymous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내게 온라인 줌 미팅에 참석해보라고 권유해왔다. Grief Anonymous는 알콜 중독자를 위한 Alcoholics Anonymous처럼 갑작스러운 가족의 자살로 힘겨워 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었다.

나는 2021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온라인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며, 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조금씩 전보다 나아지고 있다. 지난 학기에는 모든 과목을 통과했으며, 과학기술 정책을 부전공하기 시작했다. 옛 친구들에게 연락해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했으며,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전에 비해 학업량을 더 잘 소화하게 되었고,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내가 만들어 온 변화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여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답이 없는 슬픔의 딜레마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다. 과거를 놓기 어려운 적도 있었고, 동생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한 유일한 증거인 고통에 의존하던 때도 있었다.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빨래나 요리 같이 인간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처하는 법을 담은 핸드북이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엉엉 울기도 했고, 친구나 심리치료사와 긴 시간 상담하는 등 거의 수천 시간에 걸쳐 온갖 방법을 동원해 슬픔을 다스리려 애썼지만, 슬픔이라는 감정은 늘, 그리고 가장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 마치 벽돌처럼 나를 내리쳤다.

우리 사회는 종종 슬픔을 쇠약하고 가련한 상태로 바라보지만, 슬픔은 내게 약해져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과 이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었다. 이제 나는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내 가족의 과거가 다른 평범한 이들의 그것과 같아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사회로부터 받아들여 지기를 바라는 대신, 그리고 망가진 인간으로 보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대신, 나는 내 안의 슬픔이 나로 하여금 인간의 고통이 가진 다양한 측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해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내가 가진 슬픔을 다른 친구들의 과거와 비교하고 나의 내면이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변명으로 삼는 대신, 나는 고통은 어떤 잣대로도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고통은 나에게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도 타인의 고통에 열린 자세로 대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나는 십대 시절의 대부분과 갓 성인이 된 이후 몇 년간을 다른 이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보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빠졌던 토끼 굴 같이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혼돈의 시기를 통해 내 나이 22세에 배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은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나 자신을 버리지 말자'는 것이다.